



WORLDVIEW SPECIAL

세계관 운동과 지역교회

:영향력 있는 공동체





지난 1세기 이상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성공하는 교회와 신앙생활에 세뇌되어 왔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공주의 목회에 빠져서 물량주의 목회를 추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그의 저서 『성공주의 목회신화를 포기하라』는 책에서 소외당하는 소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성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진짜 소명은 소외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현실과 타협하고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소명을 소외시키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인의 거룩함과 함께 직업적 소명의 거룩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피상적인 영성을 찾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적이고 신령한 영성을 찾고 싶습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창조와 언약에 뿌리를 내려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에 나타난 누룩 비유를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장, 확장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있는 글의 전체 문맥과 함께 이해하면, 이 비유는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아니라 잘못된 성장과 부흥을 주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누룩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정복된 상황과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증거를 약화시키는 것들과의 혼합에 의해서 세워진 성공을 경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무 부패함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룩으로 상징된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절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운 가루 서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델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누룩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입니다. 외식은

마음이 없는 형식적 신앙생활을 뜻합니다. 사두개인의 누룩은 합리주의의 누룩입니다. 이들은 천사도, 영도, 부할도 부정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통치입니다. 교회가 악을 방치하고, 부정한 사람들에게 교제를 제공해온 것입니다. 누룩은 형식주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전통과 형식주의의 틀에 갇혀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틀은 형식과 전통에 가려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성경은 외식도 합리주의도, 악을 관용하는 것도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복음의 생명력을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위축되고 있지는 않은지, 외식의 누룩에 의해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는 합리주의 누룩에 의해서 특정종교의 과시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물질주의 누룩에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회를 수도원처럼 고해성사를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정작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죄를 지으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은 사머니즘, 기복주의, 이기주의입니다. 우리의 민족성은 기복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주의입니다. 내가 잘 되어야 한다.는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잘되기 원하고, 자기 앞길이 열리기 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길 원합니다. 비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자기 잘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사람들의 삶에는 이중적인 것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소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엉망입니다. 직분에 대한 이해,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비성경적입니다. 더 문제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 청소년들이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심한 갈등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20년이 지나면 교회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들에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세계관을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은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비이성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사며니즘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경계를 세워서 세상을 악한 것으로만, 교회는 회개하는 곳으로만 개념을 심어왔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도 이기주의로 가득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동화나라라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셨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책을 읽어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1년을 참여했는데 매우 감동을 받았다. 교회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사역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그래서 그 후에 교회를 다녀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선교사 동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고맙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통해서 책을 읽어주고 시간을 나눴습니다. 저는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 회복에 있다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패는 교회 스스로 자기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세상의 누룩이 들어와서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 정상적인 부흥

과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무지합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라는 정체성도 없습니다. 단, 알고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도 삶의 위한 실천의 복음에 있어서는 무지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몰두하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기복주의에 바탕한 삶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관 운동에서 가장 시급한 것 중 하나는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알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세계관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기초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관 운동의 역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이 삶의 운동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렵다고 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은 단순합니다. 주로 예수 잘 믿고 천국가면 될 거라고 얘기 하면 됩니다. 그들은 자녀 교육,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의 개념도 지극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참으로 간단합니다. 세계관 운동의 약점은 복음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려주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한풀이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주길 원합니다. 물론 성경의 능력은 그런 것들을 풀어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과 기존의 세계관은 정반대입니다. 이



기주의와 이타주의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철저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야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봉사 좀 합시다. 하면 나오는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선교에 힘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자고 해도 나오는 사람 10%도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미 교회 안에 스며든 누룩을 제거하는 문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를 뽑아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수 때에 다 불살라 버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건강한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누룩을 밀어낼 수 있도록, 깨끗한 샘물이 더러운 물을 자연스럽게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죄하고 꺾어내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도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남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전처를 밟게 될 것입니다. 혼자서는 잘 될 수 있어도, 영향력 있는 공동체로써의 힘은 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수는 있어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가 영향력을 잃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 글을 쏟아 붓는다고 한 들 삶으로 동역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은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려고 하지 않고, 한 분야씩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그런 선교단체에게 저는 왜 교회를 깨우지 못하느냐고 다시 한번 반문합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단체를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모든 크리스천들의 관점이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세계관을 연구하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써 철저히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세상의 실제적인 통치자,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철저히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교회는 영향력을 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운동을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도 직장에도 삶의 현장에도 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구별된 삶, 성경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글. 황성건 은혜로교회 담임목사, (사)청소년선교행복 대표